

300-5-138. 신문조서(李觀述 외 15명 치안유지법 위반) 5

■ 李觀述 외 15명의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사건 수록

- 權又成은 1933년 중순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으며, 다시 1937년 7월 노동조합운동을 하다 검거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에 처해져 복역했다. 1회 사건은, 京城 中央보통학교에 입학했을 때 같은 下宿의 普成專門學校 韓最頊의 권유로 공산주의서적 탐독과 실천운동에 가담하고, 1932년 중앙고보에 문화서클인 독서회를 조직한 후 反戰빠라를 살포하다 검거된 사건이다. 2회 사건은, 馬山府內의 店員독서회를 조직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강의하다 京城으로 피신, 인쇄공 鄭載徹과 제휴하여 좌익노동조합을 조직하고자 활동중 金承墳의 지도하에 운동하다가 검거된 사건이다. 그 후 金承墳·鄭載徹·李鉉相 등과 출옥 후의 실천운동을 약속했다. 출옥 후 부산, 대구, 마산, 경성 등지에서 활약하였으며, 朴憲永 등의 공산주의 이론도 듣고 공산주의 운동에 열중했으며, 그 간의 활동상황에 대한 3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경찰에서 받았다.
- 1941년 3월 22일 金德淵에 대하여 東京 戶塚경찰서장이 서대문경찰서장에게 보낸 범죄사실 조사회보가 있었다.
- 金德淵은 1926년 4월 와세다(早稻田)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민족의식 선양 목적의 동교 내 조선학생동창회에 입회하여, 高俊石·宋君讚 등과 수십 회에 걸쳐 마르크스주의연구회 독서회를 개최하였으며, 활동중 1938년 8월 野方署에 검거되어 1939년 3월 24일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자로 東京刑事地方裁判所에 송치되어 1940년 2월 13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交友者는 高俊石·朴仁錫·權仲敦·金彦炳·李榮善·安禎浩·宋君瓚·金景禧 등이다.
- 權又成의 1회 피의자 신문조사는 1942년 3월 26일 실시되었고, 2회 신문조사는 3월 28일에 실시되었으며, 3회 신문조사는 3월 30일에 실시되었다. 金三龍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는 3월 31일 실시되었고, 金台俊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는 4월 2일, 金應彬의 신문조사는 4월 3일에 실시되었다.